

융합적 공공가치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

**INSTITUTION &
ORGANIZATION LAB**

제도와 조직 연구팀

장용석 (Institution & Organization Lab)

정 슌 (Institution & Organization Lab)

주혜린 (Institution & Organization Lab)

[요약]

우리는 지금 사회 발전 과정의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던 기업, 투자기관 등 시장영역 조직들조차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사회 인재를 앞으로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문제해결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교육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내용을 개편하고, 조직구조를 바꾸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독려하면서 학생들이 융합적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도전하게 해야 한다. 더 많은 대학에서 이 같은 고등교육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1. 들어가며

ESG가 화두인 시대이다.¹⁾ 공존, 행복, 공정과 같은 비물질적 가치가 성장, 이윤, 수입과 같은 물질적 가치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 두 가치는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다. 물질적 가치인 경제적 가치는 비물질적 가치인 사회적 가치와 배치되거나 대립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재무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핵심 가치로까지 논의되고 있다. ESG 가치를 훼손하는 산업 또는 기업에서는 투자조차 받기 어려워진 것을 보면,²⁾ 우리는 지금 사회 발전 과정의 전환점에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중이다.

1)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요소를 종합적으로 이르는 용어로, 투자 및 기업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세 가지 비재무적 가치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넘어 장기적인 가치 창출과 혁신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The Global Compact, n.d.; Phadnis & Wang, 2021.03.02.).

2) 매일경제 (2021.04.19.). “블랙록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 자제”…韓금용권도 ESG 태풍”.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76705/>

GTR REVIEW-04

Great Transformation Research Review

연세대학교
행정학과FOUR 한국사회 대전환기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인재 교육연구단

이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은 무엇일까? 자본도, 기술 발전도, 제도도 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 사회가 당면한 문제별로 각 자원들의 활용과 조합이 달리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불가결한 기초 자원은 ‘사람’이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창출되는 가치라 정의할 수 있는데, 문제를 인식하는 것,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는 것,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모두 개인 단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가 그 중요성을 확대해가는 사회에서, 앞으로 어떤 사람 즉, 인재가 필요한가? 인재 양성의 핵심 주체인 교육기관은 어떻게 변화하고, 앞으로 고등교육은 어떤 혁신을 추구해야 하나? 융합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고민들을 집중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융합된 공공가치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등교육 혁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현 사회의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시도되는 고등교육 분야의 혁신 사례와 정부의 노력을 알아본다.

2. 가치융합 시대와 핵심 가치의 변화

인재 양성의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재를 키워야 하고 어떤 능력을 함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을 파악하는 데에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짚어봄으로써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 사회에서 생산해내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가치들은 향후 인재들이 만들어야 할 결과물과 성과들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업과 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부터 자본주의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이 되었다. 근대사회부터 이어져 온 자본주의의 이윤추구는 사회에서 재화와 가치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윤추구라는 속성은 시장과 공공영역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1920년대 경제 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9년 Business Round Table, 2020년 Davos Forum을 거치며 주주를 위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등 사회 전반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진화하게 되었다. 최고경영자들의 회의인 Business Round Table에서는 과거에 주주(stockholder)의 이익을 위한 이윤추구가 기업의 역할임을 제시한 것을 뒤집어 기업이 주주를 비롯해 고객, 직원, 공급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 모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Business Roundtable, 2019.08.19.; Harrison, Phillips & Freeman, 2020). 국제적인 경영 및 경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Davos Forum은 2020년에 국제사회의 화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Parker, 2019.12.20.).



시장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운영패러다임 전체가 변화했다. 1992년에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즉 리우 회의가 개최되었다. 리우 회의는 “인간과 자연환경 보전 경제개발의 양립”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논의했고, 그 결과 ‘리우 선언’이 발표되고 ‘의제21’이 채택되었다(환경부, 2020.07.20., n.d.). 리우 회의를 기점으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나와 제도화되어갔다. 유엔(UN)에서 2000년에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결의하며 국제사회에서 관심 가져야 할, 그리고 해결해야 할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사회가 경제 발전만을 추진하기보다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전 세계 개별 국가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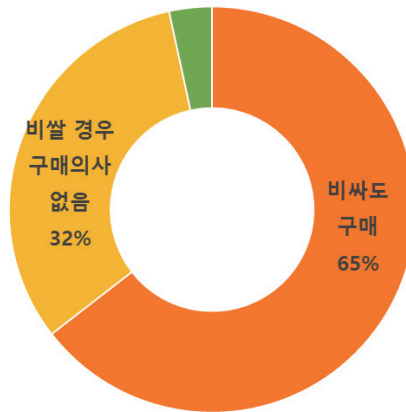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지속가능발전으로의 이행은 지금이 가치융합의 시대임을 나타낸다. 시장행위자들은 이윤추구에 공공에 대한 책임성을 결합해야 하고, 공공영역에서는 사회적 정의와 효율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나타났다.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 즉 공공가치가 융합적 전환을 경험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공공가치의 융합은 형평성, 책임성, 정의 등 비물질적인 사회적 가치와 효율성, 능률성, 이익 등 물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서로를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어 공존하는 현상을 이른다. 계급시대의 질서 및 안정, 근대사회의 경제적 가치와 번영과는 다르게 공공가치 융합시대에서는 효율성과 책임성이 융합된 지속가능성이 핵심 가치로 강조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MZ세대를 비롯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융합된 공공가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이고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고려하는 ‘좋은 소비(good money)’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영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20년간 윤리적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Co-op, 2020). 국내에서도 성인의 47%가 타인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윤리적 소비를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비윤리적인 기업은 제품의 질이 좋거나 가격이 저렴해도 구매할 의향이 없지만 친환경 제품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낮아도 소비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리서치, 2020; 나라경제, 2020).³⁾ 특히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ESG 기업제품이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65%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2022.04.04.:1; <그림 1>).⁴⁾ MZ세대의 중요 키워드인 가치소비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소비 신조어로 가심비, 미닝아웃, 돈쫄을 꼽았다(대한상공회의소, 2022.04.04.:2; <그림 2>).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들은 시장 플레이어들, 특히 미래의 주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MZ세대가 효율성만이 아닌 책임성까지 고려하여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기업의 윤리성과 사회문제에 대한 개입, 사회적 임팩트는 기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응답자: 18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남녀 1천명
설문시기: 2020.0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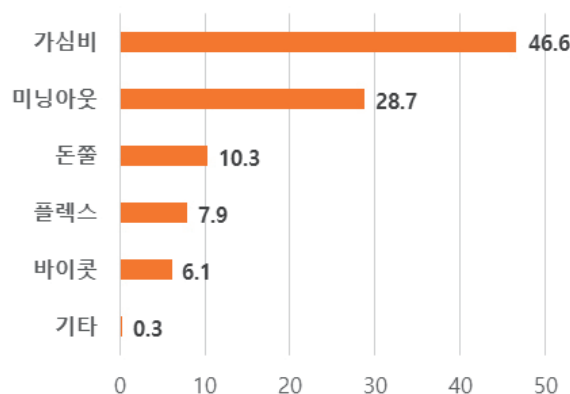
4) 응답자: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MZ세대) 남녀 380명 (20대 368명, 30대 7명, 40대 5명)
설문시기: 2022.03.01.~03.15.

〈그림 1〉 MZ세대의 ESG 기업제품 구매의향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22.04.04.:1) 재구성

〈그림 2〉 MZ세대 가치소비를 잘 반영하는 개념



주: 가심비=가격대비 심리적 만족 추구

미닝아웃(Meaning-out)=가격·품질 외 요소를 통해 개인신념 표출

돈쫄=돈으로 혼내주는 구매운동

플렉스=자랑/과시형 소비

바이콧=구매운동 (불매운동의 반대)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22.04.04.:2) 재구성

Edelman(2021:35)⁵⁾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CEO가 팬데믹의 영향이나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사회적 이슈, 지역사회 이슈 등에 관해 공개적으로 발언할 것을 기대하는 국제사회 시민이 86%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의 행위자들도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의 지배적인 의견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업의 역량(competence)은 24%의 응답자만 선택한 것에 반해 기업의 윤리성은 76%로 집계되어, 윤리성이 현대사회 기업의 생존에 더욱 핵심적인 요인임이 밝혀졌다(Edelman, 2020:24).⁶⁾

5) 응답자: 27개국 3만 3천여명
설문시기: 2020.10.19.~11.18.

6) 응답자: 28개국 3만 4천여명
설문시기: 2019.10.19.~11.18.



그리고 The Boston Consulting Group(2017:21-23)의 분석에 따르면 투자자들 또한 사회적 임팩트에 집중하고 있어 강력한 사회적 성과는 기업가치(valuation)와 이익(margin)에 도움이 된다. 기업의 중요 자원인 투자자본과 신뢰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 관련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사회운영패러다임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업들은 사회가치경영(social value management, SVM)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가치경영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업의 전략과 거버넌스 구조, 프로세스와 시스템, 그리고 자원까지 전방위적인 변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영패러다임을 의미한다(김재구 외, 2020). 사회가치경영은 최근 화제가 된 ESG투자·경영, 지속가능경영과도 연관성이 있다. ESG투자·경영은 투자 및 경영 의사결정 시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함께 반영하는 투자 및 경영방식을 이른다(The Global Compact, 2004; 홍지연, 2021). 지속가능경영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주주가치를 포함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경영방식이다(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2004; 현대경제연구원, 2004). 이처럼 최근 부상하는 경영패러다임은 모두 물질적인 가치와 비물질적인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하는 가치융합이 기업에 반영된 결과이다.

2020년대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치융합적 사회운영패러다임과 경영패러다임은 기업, 정부,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고유의 활동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얻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이익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정신은 기업, 정부, 비영리조직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3. 고등교육과 인재양성 혁신

사회 내 여러 조직에서 활동하며 조직이 융합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인재들에게는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 사회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융합된 가치를 핵심 가치로서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우리 사회에서 양성해야 하는 인재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융합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문제해결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해결역량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창조성과 논리성에 기반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n.d.:2). 문제해결역량은 산재한 사회문제들을 인지하고, 문제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며,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는 능력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모색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문제의 인식부터 해결 및 협력까지의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문제해결역량은 기존의 정책이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회혁신 활동에 필수적이다.

사회문제 해결에 적합한 인재양성의 필요성 및 교육혁신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새로운 인재상의 정립과 교육 체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도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실험하는 장으로서의 교육현장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다수

GTR REVIEW-04

Great Transformation Research Review

연세대학교
행정학과FOUR 한국사회 대전환기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인재 교육연구단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물질적·비물질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융합적 공공가치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교육혁신이란 “교육 분야의 모든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교육현장 적용 및 실행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교육 혁신은 교육 시스템, 교육구조, 교육개념, 교육방법, 교육과정, 교육자료, 교육의 시간적·공간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박선행, 2020). 사회운영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학의 역할과 정체성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과거 ‘상아탑’으로 불리던 권위적인 대학이 변화하여, 시장영역에서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그에 더해 대학 자체가 지역사회와 공공의 영역에 공헌하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자명하다.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혁신 생태계의 활성화에 필수요건인 비전과 열정을 가진 인재가 생태계에 자리 잡도록 하는 교육 투자와 인재들의 활동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임팩트 인프라 구축과 같은 두 가지 요소에 있어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장용석, 2021.04.23.). 이와 같은 대학의 역할 변화와 융합적 공공가치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을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학생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지원하며 나아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전 과정의 개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4. 대학의 사회문제해결형 교육

대학의 사회문제해결형 교육을 위한 혁신 사례는 다양하다. ESG 열풍이 대학조직에까지 확산되면서 대학의 조직 운영 패러다임으로서의 ESG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 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내 ESG 관련 강좌의 개설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⁷⁾ 이처럼 ESG의 확산과 MZ세대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합하여 대학의 사회문제해결형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를 통하여 대학의 융합적 공공가치 구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Arizona State University (ASU) 교육혁신

ASU는 최근 7년간 U.S. News & World Report가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대학(The most innovative university)” 1위로 선정되었다.⁸⁾ ASU는 대학조직 구조조정과 함께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창업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의 재구성,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직·교육·강의 등 대학 전반에 변화를 유도하는 혁신을 추구하였다(김혜진, 2017). 창업 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혁신 3

7) 한경ESG(2021.10.17.). “특화 대학원·교양과목 개설...대학도 ‘ESG 바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1727921>

8) ASU News(2021.09.12.). “ASU named most innovative university seven years running”. <https://news.asu.edu/20210912-university-news-asu-no-1-innovation-us-news-world-report-seventh-year>

단계(학습-참여-창업)를 통하여 학생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습 단계에서는 개별 강의 수강 및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며, 참여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및 기업에서의 인턴십 등 학생의 현장 경험을 증진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 입문 수강, 멘토링, 창업자금 편당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독자적인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을 독려한다. ASU는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하여 타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산학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는 등 혁신 활동을 지원한다. ASU는 Engineering Projects in Community Service(EPICS)라는 사회적 혁신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선단체, 학교 및 기타 비영리 조직의 엔지니어링 기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늘날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며,⁹⁾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교육(education), 건강(health),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같은 네 가지 분야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Arizona State University, n.d.). <그림 3>은 EPICS프로젝트 중 건강 및 지속가능성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Din Tuan Anh(딘투안안)이 이끄는 AutoMov팀은 수동휠체어를 전동휠체어로 변환하는 보조장치인 조이스틱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휠체어를 낭비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동휠체어로 만들어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 또한, AutoMov팀에서 개발한 휠체어 개조 장치는 사용자가 야외에서 휠체어를 조작하는 동안 에너지를 모으고 저장할 수 있는 태양 전지판을 갖추어 지속가능성 역시 강화하였다(Clement, 2022.01.06.).

<그림 3> 2021 EPICS Final Showcase에 참여한 AutoMov팀



자료) Clement(2022.01.06.)

9) "Our students aren't waiting to graduate to make a difference—they are tackling real-world problems today.(Arizona State University, 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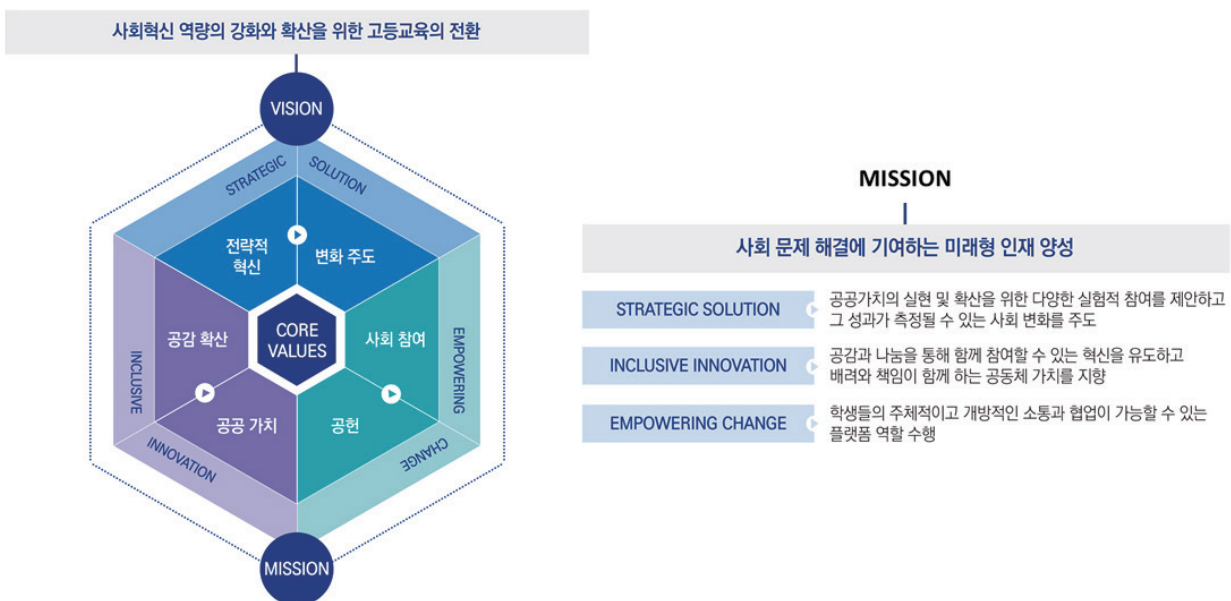
2) 연세대학교의 VISION YONSEI 150과 고등교육혁신원¹⁰

연세대학교는 비전으로 “진리와 자유를 향한 연세의 도전”을 수립하고, “공동체 정신을 지닌 혁신적 리더”를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지구와 인류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와 지식을 추구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은 연세대학교의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기관 중 하나로 미션 및 비전은 <그림 4>와 같다.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은 “사회혁신 역량의 강화와 확산을 위한 고등교육의 전환”을 비전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미션으로 수립하였다. 고등교육혁신원은 “공동체 정신을 지닌 혁신적 리더”라는 연세대학교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혁신타운 및 사회혁신 스튜디오와 같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산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고등교육혁신원 프로그램은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 간 연계를 통하여 공동체적 정신을 지닌 혁신적 리더를 교육하고, 양성된 인재의 현장 경험을 지원하며, 프로그램이 창출한 성과를 확산하도록 구조화되었다. 교과 영역에 속한 “사회혁신역량 교과목”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본 소양 및 역량을 함양하고, 비교과 영역의 “위

<그림 4>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의 미션 및 비전



자료)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홈페이지(n.d.) 재구성

10) 본 장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홈페이지. <https://ihe.yonsei.ac.kr> (접속: 2022.04.10.)



크스태이션” 활동을 통하여 직접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경험을 쌓는다. 이를 통하여, 전통적인 지식전달(knowledge transfer)에서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며, 창의적 방식과 융합적 사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사회혁신 교육” 실험을 선도하고 있다.

5. 정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 노력¹¹⁾

지금까지 가치융합시대의 핵심가치와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문제해결역량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의 사회문제해결형 교육을 위한 교육혁신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 노력은 대학에 한정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주체의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혁신의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에 관련한 국가의 대표적인 정책 및 사업은 교육부가 설계한 대학혁신지원사업,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등이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와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독려하며,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창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기본방향은 크게 자율강화, 혁신성장, 성과제고, 세 가지이다. 자율강화는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하여 혁신과제를 선택·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혁신성장은 “대학이 선택한 혁신과제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 혁신 모형을 창출하고 대학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성과제고는 “자체성과, 중장기적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총 143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자율협약형은 131개의 대학이, 역량강화형은 12개의 대학이 해당한다. 자율협약형이란, 대학의 비전과 목표, 여건 등에 부합하는 혁신 전략 및 과제 선택을 통한 총체적 자율 혁신 지원 유형이며, 성과평가를 통한 혁신성장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을 포함한다. 역량강화형은 대학에 대한 적정 규모화 유도 및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자율협약형과 달리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과 같은 적정 규모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보다는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을 운영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는 2019년~2021년 총 3년의 사업기간 동안 1조 9,00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¹²⁾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은 4단계 BK21 사업에 신설되었으며, 대학원 본부가 중심인 대학원 교육 및 연구 혁신을 지원한다. 대학원 차원의 제도개혁 비용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는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한다. 중점 지원 분야는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대학 내 체제 개편, 대학원 교육 개선, 연

11) 본 장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①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https://uispc.org/main/index.php> (접속: 2022.04.13.) ② 4단계 BK21. <https://bk21four.nrf.re.kr/> (접속: 2022.04.10.), ③ 교육부 (2021.12.20.). 대학원 발전 방향 모색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대학원 혁신 공개토론회 (포럼)’ 개최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355>

12) 2019년 약 5,688억 원, 2020년 약 6,368억 원, 2021년 약 6,951억 원의 사업비를 운영

구 환경 및 질 개선, 대학원국제 경쟁력 강화 등이다.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과 연관된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의 평가지표는 [1. 대학의 목표와 전략], [2.4. 산업계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 [3.2. 대학 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문화 형성] 등이 있지만, 이외에 다양한 부문에서 대학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개선 및 혁신 노력을 정성평가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학원 혁신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약 528.8억 원이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20% 범위 내에서 참여 대학원의 혁신 지원비를 조정함으로써 성과를 관리한다(교육부, n.d.).

6.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대학의 사회문제해결형 교육 사례와 정부의 융합적 공공가치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 지원의 정책적 노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들이 사회혁신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소수의 대학만이 선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고등교육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대적 요구에 비해 이에 부합한 실천적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고등교육 혁신의 플레이어가 대학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및 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융합적 가치 구현에 대한 목소리와 요구는 기업과 사회 전반 및 MZ세대, 시민사회와 같은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하향식(top-down)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담아내며 융합적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하여, 공공가치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혁신에 필수적인 대학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은 재정·조직·프로그램 차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재정 분야에서는 다양한 지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임팩트 중심의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재정 운영에 있어 학생 중심의 재원 관리 및 활동 지원에 힘써야 한다. 조직 차원으로는, 운영 유연성과 네트워킹 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선해야 하며 성과 중심이 아닌 과정을 지원하고 가치를 지향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교내에 산재한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적인 사회혁신이 아닌 확장적인 사회혁신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융합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먼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의 지원자 역할이다. 대학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의 고등교육 혁신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혁신 어려움 발생 시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융합적 공공가치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의 성과를 관리 및 확산시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대학 간 상호 컨설팅 활성화 및 우수 혁신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성과를 확산시키고, 성과 지표의 개발,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혁신 성과의 객관적·통합적 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4단계 BK21. <https://bk21four.nrf.re.kr/> (접속일: 2022.04.10.)
- 교육부 (2021.12.20.). 대학원 발전 방향 모색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대학원 혁신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355>
- 교육부 (n.d.).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교육부
- 김재구·배종태·이정현·이무원·양대규·강신형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가치경영의 실천 전략. 클라우드나인.
- 김혜진 (2017). KEDI BRIEF 대학교육혁신사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 나라경제 (2020). “소비자 47% 윤리적 소비 경험…동물복지 제품 만족도 가장 높아”. 나라경제, 2020년 11월호: 26.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https://uispc.org/main/index.php> (접속: 2022.04.13.)
- 대한상공회의소 (2022.04.04.). “MZ세대는 가성비 보다 ‘가심비’… 비싸도 착한제품 고른다” [보도자료].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4892&CHAM_CD=B001
- 매일경제 (2021.04.19.). “블랙록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 자제”…韓금용권도 ESG 태풍”.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76705/>
- 박선형 (2020). 혁신의 정의와 발생구조 및 이론체계에 근거한 교육조직 혁신 발전방향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38(2): 25-58.
-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홈페이지 (n.d.). 미션 및 비전. <https://ihe1.yonsei.ac.kr/ihei/about/mission.do> (접속: 2022.04.10.)
-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홈페이지. <https://ihe1.yonsei.ac.kr> (접속: 2022.04.10.)
- 장용석 (2021.04.23.) [전문가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가치 교육, 아무리 투자해도 과하지 않다. SOVAC. <https://socialvalueconnect.com/community/view.do?communitySeq=131>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2004). 지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와 실천과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 한경ESG (2021.10.17.). “특화 대학원·교양과목 개설…대학도 ‘ESG 바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1727921>
- 한국리서치 (2020). 방식은 달라도 가치가 모여 실현하는 착한 소비. 한국리서치.
- 한국산업인력공단 (n.d.).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교수자용 - C.문제해결능력. 한국산업인력공단.
- 현대경제연구원 (2004). [특집] 지속가능경영의 도입 프레임워크. 현대경제연구원.
- 홍지연 (2021).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 역할 확대. 자본시장연구원.
- 환경부 (2020.07.20.). 우리가 기억해야 할 환경 역사 ② 리우 회의 1992.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473&boardMasterId=752&boardId=1382780>.
- 환경부 (n.d.). 유엔환경개발회의.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635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92&orgCd=&condition.deleteYn=N&seq=39

- Arizona State University (n.d.). "Our projects focus on four themes." Engineering Projects in Community Service (EPICS) – Arizona State University. <https://epics.engineering.asu.edu/> (접속: 2021.09.14)
- ASU News (2021.09.12.). "ASU named most innovative university seven years running." <https://news.asu.edu/20210912-university-news-asu-no-1-innovation-us-news-world-report-seventh-year>
- Business Round Table (2019.08.19.). "Business Roundtable Redefines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to Promote 'An Economy That Serves All Americans'." <https://www.businessroundtable.org/business-roundtable-redefines-the-purpose-of-a-corporation-to-promote-an-economy-that-serves-all-americans>.
- Clement, Monique (2022.01.06.). "Vietnamese student entrepreneurs electrify wheelchairs." Arizona State University. <https://fullcircle.asu.edu/outreach/vietnamese-student-entrepreneurs-electrify-wheelchairs/>
- Co-op (2020). *Ethical Consumer Markets Report 2019 – Twenty Years of Ethical Consumerism*. Ethical consumer.
- Edelman (2020). *2020 Edelman Trust Barometer-Global Report*. Edelman.
- Edelman (2021). *2021 Edelman Trust Barometer-Global Report*. Edelman.
- Harrison, Jeffrey S., Phillips, Robert A., & Freeman, R. Edward (2020). "On the 2019 Business Roundtable "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Journal of Management*, 46(7): 1223–1237.
- Parker, Ceri (2019.12.20.). "The World Economic Forum at 50: A timeline of highlights from Davos and beyond."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agenda/2019/12/world-economic-forum-davos-at-50-history-a-timeline-of-highlights/>
- Phadnis, Dhananjay, & Wang, Flora (2021.03.04.). Sustainability is key for value creation. Fidelity International. <https://www.fidelityinternational.com/editorial/blog/sustainability-is-key-for-value-creation-88cb75-en5/>
- The Boston Consulting Group (2017). *Total Societal Impact: A new lens for strategy*. The Boston Consulting Group.
- The Global Compact (2004). *Who Cares Wins*. The Global Compact.
- The Global Compact (n.d.). *Private Sustainability Finance*. The Global Compact.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action/private-sustainability-finance>